

'팅커벨 프로젝트'의 활동가, 황동열님께

황동열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학년 정아윤 여예요.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황동열님의 이야기를 읽고 너무나 감동적
이었고, 유기견들을 구조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찬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소에 동물을 무척
좋아하고 그중에서 특히 강아지, 큰 개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유기
견들의 이야기들을 책에서 읽는 것보다 몇 번 있어서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지요. 먼저 황동열님이 말하는 단체에 올라온 글에서 우찬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정말 화가 나고 슬펐어요. 화난 이유는 버려진 개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케빙 우찬이를 내쫓으려고 쓰레기를 던 파는 쿠면들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슬
펐던 이유는 우찬이의 목에 선것줄이 걸려 있고, 다리가 부러진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도 주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황동열님이 우찬이를 환관
하게 구조했을 때 너무나 기뻐했고,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허벅지
뼈가 두 동강난 통증을 의연하게 참아내는 우찬이를 보니 슬프기도 했고 수술을
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몸살기가 있는데도
폭우를 헤쳐 나가며 한 생명을 구한 황동열님께 존경심과 고마움, 그리고
감동을 느꼈어요. 고무 첫 번째 파이를
구하지 못 했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스러웠지요. 파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두 번째 파이 이야기를 해볼
게요.



두 번째 파이의 구조되기 전 사진을 봤을 때 우찬이 때보다 더욱
화가 나고 슬펐어요. 파이의 운명을 때리고 당뱃볼로 치는 등 심한 학대를
한 주인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고, 그런 심한 학대를 당한 불쌍한 파이를
보니 너무나도 슬펐지요. 그래서 비록 윗기견들이 너무 많지만 파이를 구하기로한
'탱커벨 프로젝트' 단체의 위원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파이를 구했을 때는
더욱 기뻐했어요. 하지만 파이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니 슬펐지만,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파이의 아리를 치료해주어 기뻐했어요. 그리고 심한 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순한 성격의 파이를 보니 마음이 썩혔지요.

제가 제일 놀라웠던 것은, 파이를 입양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파이의 주인이
된 사람의 약속을 담은 편지였어요. 그 내용을 읽으니 파이의 주인이 9번 일
을 세기로 윗기견과 장아찌에 '관심'이 더 가지 됐고, 파이를 조롱하게
키울 거라고 짐작돼 마음이 도대었어요. 황동열님, 저는 앞으로 '사지 말고
입양하라'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겠어요. 벌써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황동열님.

- 2022. 8. 10

고맙고 중동경면 마음을 담아,
정다운 불림 -

